연구소 소식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족 및 제1, 2차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7월 26일(목) 오후 5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누리과정 발전포럼'은 2012년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을 앞두고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보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와 협의하여 전문가와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모임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은 개회사에서 누리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후속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 현장과 부모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3~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막대한 지방재정투자 증가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서비스 향상은 물론 공공성, 책무성, 투명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므로 포럼 참여 위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소 장명림 정책연구실장은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추진, 3~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포럼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익 유아교육과장과 보건복지부 김현준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자를 비롯하여 유관 학회 및 단체, 전문가, 언론인,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9월 6일(목)에는 '5세 누리과정 현장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이 같은 곳에서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미래인재정책관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의 격려사에 이어 본 연구소 이영 소장이 지난 1차 포럼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전호숙 회장과 구립 면일어린이집 오경숙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누리과정 현장 적용에 따라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0월 18일(목)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3차 포럼으로서 누리과정 질 제고 관련 요인별 소집단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2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4일(금)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강당에서 유아 인성교육 우수기관 공모 사업 결과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3개년에 걸쳐 합동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심사지표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장명림 정책연구실장)'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 전국 500여명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 지표 및 매뉴얼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미래인재정책관,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 등이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2년도에 인성교육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280개원의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에 해당하는 1차년도 사업 추진 요령과 2013년 9월부터 적용될 2차년도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NIEER과 국제학술지 공동 발간 MOU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미국의 뉴저지 주립대학교(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산하기관인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NIEER)와 8월

10일(금) 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EP)를 2013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 발간하기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세계 각국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다루는 많은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게 될 것이며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논문을 확보하고 인용 지수를 높여 SSCI 등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다.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31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세부주제 아래, 그 간 구축되어 온 3차년도까지의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하는 어머니 가정, 저소득 가정,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등 네 가지 대주제 영역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이 8가지의 소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경기지역 2012 영차프로젝트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4차년도 연구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적용 시범연구'(연구책임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수행의 일환으로 지난 9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경기지역 2012 영차프로젝트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박인범 교육위원장과 이재삼 교육위원, 염동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지역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공무원, 원장 및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연구소 문무경 동향분석연구실장이 영차프로젝트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세 쌍의 협력 사례와 함께 경기지역 유아교육·보육 지원체계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지정 토론자로 강남대학교 문연심 교수, 협성대학교 김익균 교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임현순 부회장이 참석하여 유보협력 현황 진단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2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바람직한 자녀양육 지원정책'을 주제로 2012년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는 청와대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황요한 보육정책관 외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영 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동시에 영아의 경우는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제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0~2세 영아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조강연자인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 역시 우리 육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며 자녀 양육은 부모의 돌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육아가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정부가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소의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어린이집 서비스 다양화, 이용 시설 확대, 부모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정책 제안을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규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심의보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장,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 조선경 부평구립 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 영아 자녀를 둔 이영주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제7차 금요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3일(목)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제7차 금요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시간제 일시보육, 0~2세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9월 21일(금) 오전 11시에는 유네스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문무경 동향분석연구실장의 발표로 제8차 금요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7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26일(금) 오후 2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누리과정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 설계 및 평가 척도'를 주제로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산하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NIEER) 소장인 Steven Barnett 박사와 미국 Early Learning, Research and Training, Acelero Learning의 부원장인 Ellen Frede 박사가 기조강연 및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